

QR코드?... “외국어 표현 이해하기 어려워”

외국어 표현 3500개 이해도 조사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해 단어 30.8% 문체부 “사회적 소통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말 쓰일 수 있도록 지원 계획”

지나치게 남용되는 외국어 표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은 극히 일부의 용어만 이해하고 있어 연령별 격차도 심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와 공동으로 외국어 표현 3500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단어 중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30.8%(1080개)에 불과했다. 이들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은

61.8점이었다. 또 60대 이하의 경우 66.9점이었지만 70세 이상은 28.4점으로 집계돼 세대 간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컸다. 60대 이하에서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1378개(39.4%)인 데 비해 70세 이상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242개(6.9%)뿐이었다. QR코드·팝업창·키워드·모바일 앱·패스워드·스몰폰·노키즈존 등 346개의 표현은 60대 이하가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비율과 70세 이상이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비율이 단어마다 50%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이해도

격차는 특히 정보통신과 관련된 단어에서 두드러졌다. 루저·리워드·스트리밍·리팩트·스킬·메디컬·3D 등 1245개 표현은 70세 이상 응답자 중 10% 이하만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했다. 이를 볼 때 외국어로 인한 ‘신문맹’이 우려될 정도로 언어 이해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게 문체부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의 74%는 일상에서 외국어나 외국 문자 등 외국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상에서 외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6.1%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국어 표현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최근 우리말 대체어를 보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통일성 있고 편하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의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어를 우리말로 고쳐쓰거나 병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서울·경기 등 16개 지역의 14~79세 국민 1만1074명에게 온라인(10~60대) 및 개별 면접(70대)으로 진행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소통이 중요한 상황에서 쉬운 우리말이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보도자료, 보고서 등에 어려운 외국어 사용을 줄여 나가도록 평가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 동참’ 전주퀴어문화축제 취소

전주에서 2년 연속 열렸던 ‘전주퀴어문화축제’가 올해는 취소됐다.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제3회 전주퀴어문화축제’를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직위는 오는 5월 16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개최 준비를 해왔으나 보건당국의 지침과 당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5월 16일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참가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축제를 축소 또는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며 “온라인 캠페인 방식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고생 끝에 오는 것은 고생...’

신간도서 - 내 꿈은 놀면서 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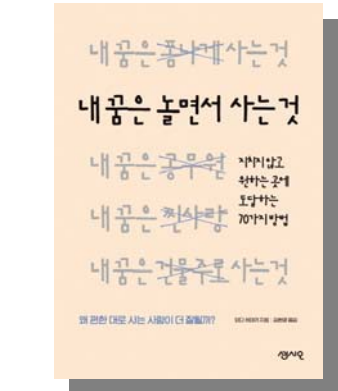
정차식. 은퇴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만년 부장. 젊은 후배들의 능력을 쫓기 위해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며 일하고, 상사가 시키는 것에는 충성하며 따른다.

정 부장은 평소 자신의 딸에게도 ‘성실’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던 인물이다. 하지만 은퇴 위기 앞에 놓여서는 딸에게 한마디 털어놓는다.

“인생이 그렇게 정직하지가 않아.” 보통 사람들은 성실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여유를 추구하고 찾다가도 막상 업무 등 일상에서는 여유와 거리가 먼 삶을 산다. 그래서인지 회한하게도 ‘여유’와 ‘편함’은 때론 ‘성실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노력보다는 요령을 피우는 쪽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편해 보인다?” “편한가 보다?” 등의 표현에는 이러한 인식이 배어있다.

그런데, 정말 편해서는 안 되는 걸까. 정작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모두 우리가 보다 편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뤄져온 것인데 말이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는 오히려 이런 편함을 부추긴다. 이제부터라도 노력은 관두고 요령을 부리며 편하게 살라고 말한다. 인생은 길고, 애만 쓰며 살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편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와다 히데키는 나아가 자신의 저서 ‘내 꿈은 놀면서 사는 것’에서 놀면서 성공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목표를 이루는 기한을 ‘평생’으로 정하고, 편한 방법으로 노력을 이어가다보면 중간에 멈추거나 주춤하더라도 포기할 일은 없다고 주



장한다. 편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면 그 과정이 힘들지 않고, 특정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다소 황당하고 과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편한 삶을 위한 7가지 방법도 소개한다. 편함을 추구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편견을 깨는 것부터 매사에 무작정 노력하기 보다는 편해질 공리를 하라, 힘들면 목표치를 낮춰라,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라 등을 고루 다룬다. 저자는 고생 끝에 오는 것은 나이 아니라 고생이며, 괴로움을 참는 것이 미덕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한다. 높은 목표치 설정에 스스로 지쳐 포기하고, 결심이 무너져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기보다는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꾸준히 시도하는 게 낫다고 한다. 220쪽, 김현영 옮김, 센시오, 1만5000원. /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 천 마스크 제작·전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400여개 만들어 덕진동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천 마스크 400여개를 만들어 전주시 덕진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제작은 마스크 풀귀 및 구입비용 부담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마스크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마스크 제작에는 센터 의상제작 동아리 회원들이 재능기부 봉사자로 참여해 힘을 보탤다. 센터 동아리 회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센터 또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화훼농가돕기 캠페인과, 센터 입주기업에게 6개월 동안 임대료 30%를 감면하는 착함임대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천 마스크 제작·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센터 전략기획팀 063)254-3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산골영화제의 여정 함께해요’

기업 파트너·홍보 부스 모집

영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을 설레게 할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의 여정을 함께할 기업 파트너 및 홍보 부스를 모집한다.

그동안 매년 6월 초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 ‘무주산골영화제’는 풍성한 국내외 영화 라인업과 함께 깊이 있는 영화 토크, 뮤직 페스티벌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믿고 즐기는 영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30 세대부터 가족 관객까지 누구나 자연 속에서 영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롭고 특별한 문화 축제로 호평 받고 있어, 매년 다양한 기업 및 단체들이 폭넓은 문화 소비자들과 만나기 위해 ‘무주산골영화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여덟 번째의 낭만적인 영화 축제를 함께할 기업 파트너를 모집한다.

문화 파트너로서의 공식 후원을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현금 및 현물 협찬,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정 기부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하게 될 문화 파트너에게는 협찬 및 기부 규모에 따라 영화제 기간 중 주요 행사 공간, 공식 인쇄물 및 옥외홍보물, 그리고 영화제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한 광고를 비롯해 개막식 및 주요 행사 공식 초청, 현장 관객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제 관객들에게 기업 및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후원을 통한 공식 문화 파트너 외에도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중 기업 및 단체의 브랜드와 서비스를 관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홍보 부스를 별도로 모집한다. 홍보 부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23일부터 이메일(mujufilmfest@naver.com)로 기업 소개서와 홍보 부스 운영안을 제출하면 된다. 기업 파트너 및 홍보 부스 모집 관련은 ‘무주산골영화제’ 사업마케팅실(063-245-64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